

2025 추석

가정예배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2025 추석 가정 예배

오늘은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입니다. 이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합시다. 함께 묵상기도하겠습니다.

묵상기도 시편 34:9~10 다 같 이

⁹ 너희 성도들이 여호와의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¹⁰ 젊은 사자는 굶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의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도다

신앙고백 사 도 신 경 다 같 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 송 559장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다 같 이

1.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집 즐거운 동산이라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잇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 하루

기 도 말 은 이

성경봉독 시편 103:1~5 말 은 이

¹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²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³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⁴ 네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⁵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데다



설 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말 은 이

가정에서의 다 갈 이
하시조 실천

1. 가족과 함께 받은 은혜를 나뉘보기

을 한해 받은 은혜를 나누며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2. 서로에게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기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가족에게도 감사와 사랑의 말을 나눕시다.

합심 기도 가정을 위해서 다 갈 이

찬 송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다 갈 이

1.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하리라

2.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3.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 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 하셨네 아멘

주기도문 다 갈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는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자신의 전 인격과 존재를 향한 거룩한 명령이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결단입니다.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토록 깊은 찬양을 드리게 했을까요? 그 비결은 단 한 가지, 자신의 삶을 수놓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화려한 왕좌 위에서만이 아니라, 고통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자기 삶에 함께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윗이 노래했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함께 묵상하며, 우리 삶에 베푸신 은혜를 되새겨보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은 가장 깊은 죄의 상처까지도 어루만지는 '용서의 하나님'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견고한 벽을 세워, 그분과의 가장 큰 기쁨인 친밀함을 가로막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때로는 반복되는 죄의 굴레 속에서 죄책감과 정죄감에 짓눌려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고 그 분께로 돌아설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이 대속의 은혜야말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먼저 용서하시고 품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가정 안에서도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이해하는 사랑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순간에 우리를 붙드시는 '차유와 보호의 하나님'입니다.

다윗의 삶은 죽음의 위기가 늘 따라다니는 광야와 같았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 수없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그 때마다 그의 생명을 지키시고 모든 위기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대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돌아보십시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던 순간,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던 밤, 인생의 거친 풍랑 앞에서 절망하던 때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에셀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오늘 우리 앞에 여전히 풀리지 않은 문제가 남아있다 할지라도,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가장 안전한 품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는 '공급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좋은 것'이란, 단순히 물질적 풍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 얻게 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 당연하게 여겼던 가정과 일터의 평범한 일상, 그리고 힘들 때 힘이 되어주는 가족과 공동체와의 따뜻한 관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낙심했을 때, 독수리가 창공을 향해 날아오르듯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분의 능력이야말로 가장 '좋은 것'입니다.

타인과 비교하는 순간, 감사는 불평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돌려 이미 내 삶에 베풀어주신 '좋은 것들'을 헤아려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만족과 감사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죄 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 그리고 날마다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의 찬양은 바로 이 '기억'에서부터 터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흠려졌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모두 다윗과 같이, 지금까지 우리 가정과 삶에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마음을 모아 다 함께 외치길 바랍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찬양이 우리 모두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